

弘益大 就業情報센터의 효율적 運營

李 載 昌

(弘益大 就業情報센터소장)

1. 設立背景

오늘날의 職業 世界는 점차로 多樣化·專門化·細分化되어 가고 있다. 우리 社會가 多樣해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일의 종류도 다양하게 되었다.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職種이 존재하고 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職業의 種類가 1800년대에는 450여종이던 것이 1945년에는 약 1만 중, 1970년에는 약 5만 중으로 증가하였고 오늘날에는 약 20만 중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專門家들에 의하면 現存하는 職業의 25% 정도는 전에는 없었던 것이며, 앞으로 25년 후에는 現存하는 職業의 50% 이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1만 중 이상의 職業이 있고, 2000년대가 되면 2만 중 이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現代 職業社會의 特徵은 바로 變化와 多樣化라는 말로 表現할 수 있다.

또한 現代 職業社會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專門化되어 있다. 일 자체가 대부분 나름대로의 專門인 知識과 技術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分野에 대한 專門의 教育이나 訓練을 받지 않고는 일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나름대로의 專門性이 요구되고, 또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專門家的인 자세가 요구된다.

人間의 生活은 일, 즉 職業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人間社會의 엄연한 사실은 누구나 職業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일의 意味가 다를 수 있다. 단순히 生計를 벌기 위한 手段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知識과 技術을 活用하는 機會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潛在力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職場同僚들과 어울릴 수 있는 場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職場을 단순히 生計를 벌고 同僚와 어울리기 위한 手段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의 意味를 너무 限定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職場을 갖는 것은 무엇을 成就하기 위한 道具나 手段으로서보다 일 자체에서 보람과 意味, 또 幸福을 찾을 수 있는 自我實現의 過程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代社會와 같이 物質萬能主義가 지배하는 狀況에서는 자칫 일의 본래의 意味를 喪失하고 다른 物質的인 補償에 너무 집착할 수도 있다. 오늘날과 같이 就業展望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럴수록 일의 본래의 意味를 간직하는 健全한 職業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職業을 選擇하는 일은 一生을 통해서 가장 重要한 決定 중의 하나이다. 치열한 入試競爭의 關門을 통과하여 大學에 進學하고 大學에서 연마한 學問的·專門的 知識과 技術 등이 바로 就業

이라는 것으로 終結된다. 따라서 大學生들이 가장 關心을 가지고 있는 問題가 바로 就業 및 進路에 관한 問題이고, 卒業後의 就業與否에 따라서 大學進學 및 大學生活이 評價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大學生들의 進路 및 就業에 대해서 學校에서 關心을 갖는 것은 當然하고, 또 學生들을 위한 多様な 奉仕活動 중에서도 가장 重要한 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現代社會와 같이 職業世界가 多樣化·專門化·細分化되어 있는 狀況에서는 종래의 方法으로는 效果의 인 進路 및 就業指導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學生들에 대한 就業活動도 고도의 專門性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의 變化와 要求에 의해서 弘益大學校에서는 學生處의 職業輔導研究室로 되어 있던 것을 1976년 職業輔導所로 승격시켰었다. 그러다가 學生處의 獎學課에서 就業業務를 담당하다가 1984년 10월 8일에 學生生活研究所에 研究相談部와 함께 職業輔導部를 新設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學生就業業務의 能率性과 專門性을 기하기 위해서 1986년 9월 1일 學生生活研究所에서 분리되어 獨立된 附屬機關으로서 就業情報센터(Career Development and Placement Center)가 設立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센터의 英文表記를 Recruitment Information Center로 했었으나, 1988년부터 센터의 機能을 단순한 就業業務에 국한시키는 데서 벗어나 學生들의 進路開發과 計劃까지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Career Development and Placement Center로 바꾸었다.

2. 組織 및 業務

弘益大學校 就業情報센터에서 주로 담당하는 業務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들의 就業, 副業指導와 알선
- ② 就業情報資料의 제공
- ③ 就業情報資料의 수집
- ④ 各種 企業體 및 有關機關과의 유대 및 情報交換

⑤ 就業對策 冊子發刊

⑥ 就業에 필요한 特講 및 세미나 개최

이외에도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就業과 進路에 대해서 相談을 한다.

本 센터의 組織은 所長과 職員을 두고 있다. 所長은 副教授 이상의 敎員 중에서 總長이 임명하고, 所長은 總長의 命을 받아서 本 센터의 業務를 관장하고, 소속 職員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약간 명의 職員을 둘 수 있는데 현재는 課長 1人, 職員 1人, 事務補助員 1人, 그리고 勤勞獎學生 7人 등이 業務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本 센터는 또한 센터 運營에 관한 所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해서 運營委員會를 두고 있다. 運營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委員長은 本 센터의 所長이 되고, 委員會의 委員은 學生處長, 學生生活研究所長 및 각 大學長으로 되어 있다. 運營委員會에서는 학생들의 就業 및 副業指導에 관한 사항, 就業에 관한 情報資料의 수집에 관한 사항, 각 企業體 및 有關機關과의 協助에 관한 사항, 기타 學生就業과 관련이 있는 부대 업무 등에 관해서 諮問에 응한다.

3. 事業內容

就業情報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事業은 勤勞獎學生 선발, 아르바이트 알선, 就業 추천, 就業 및 面接 特講, 就業對策 冊子發刊 등의 業務이며 이밖에 티크루트社가 주관하는 企業體 合同說明會와 ROTC사관 후보생들을 위한 企業說明會도 本校에서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主要 事業內容과 實績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勤勞獎學生 選拔

本 센터에서는 弘益大學校 獎學金 支給規程에 의한 勤勞獎學生 選拔業務를 담당하고 있다. 勤勞獎學生 勤務 및 選拔規則에 의하면 勤勞獎學生 선발 인원 배정은 學生處長이, 選拔에 관한 업무는 就業情報센터 所長이 관장하게 되어 있다.

매 학기초에 勤勞獎學生 선발 공고를 弘大新聞에 게재하고 게시 공고하여 희망자로부터 원서를 받는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소정 양식) 1부, 성적 증명서 1부, 납세 및 미과세 증명서 1부, 생활 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 등이다.

選拔基準은 大學·學科別로 균등하게 다음 배정 기준에 의거하되 생활 보호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단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요인들을 점수화 해서 점수 순위대로 각 學科의 배정 인원을 고려해서 선발하게 된다.

- ① 학부도 財産稅 과세 정도(총 30 점)
미과세(20 점),
0~1,000 원(25 점),
1,001~3,000 원(20 점),
3,001~5,000 원(15 점),
5,001~10,000 원(10 점),
10,000 원 초과(0 점)
- ② 業務遂行 能力 및 適性(총 10 점)
上(10 점), 中(5 점), 下(0 점)
- ③ 家計收入 程度(총 20 점)
20만원 미만(20 점), 30만원 미만(15 점), 40만원 미만(10 점), 50만원 미만(5 점), 50만원 초과(0 점)
- ④ 學業에 지장을 주는 家庭環境(총 20 점)
보호자나 후견인이 없이 고학을 하고 있는 경우(20 점), 미성년자 또는 노부모가 근로를 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20 점), 가족 중 장기 요양 또는 치료를 요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20 점), 재난(수재, 화재)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20 점), 경제적 파탄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10 점), 가족이 많아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5 점), 학비 조달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0 점)
- ⑤ 學校貢獻度(총 5 점)
학생 회장·과 대표·씨클 대표·학생회 간부·수상 경력 등이 있으면 5 점, 그렇지 않으면 0 점
- ⑥ 勤勞獎學生 勤勞經歷(총 5 점)
근로 장학생 근무 경력이 없으면 5 점, 있으면 0 점
- ⑦ 銀行融資 收惠與否(총 10 점)
은행 융자 수혜가 없으면 10 점, 있으면 0 점

이상에서 ②항과 ④항은 面接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면접은 面接委員이 실시하며, 面接委員은 學生處長과 就業情報센터所長이 된다.

이상과 같이 각 해당 사항을 점수화 해서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부서별로 점수 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각 學科의 定員에 비례한 學科別 勤勞獎學生 배정 수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최근의 학생들의 勤勞獎學生 지원 상황을 보면, '89년도 1학기에는 143명 모집에 182명이 지원을 하였고, '89년도 2학기에는 143명 모집에 231명이 지원을 한 반면에, '90년도 1학기에는 134명 모집에 144명이 지원을 하였다.

2) 副業 斡旋

매 학기 勤勞獎學生 선발이 끝나는 즉시 아르바이트 신청을 받는다. 아르바이트 알선은 점수 순에 따라서 추천을 하게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副業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는 날은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기도 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例年에 비해 신청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1989학년도 2학기 副業 알선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89학년도 2학기 부업 알선 현황

구분	대학생 수(A)	희망자 수(B)	B/A (%)	알선자 수(C)	C/A (%)	C/B (%)	수입액
남	5,984	544	9.1	435	7.3	79.9	198,865 천원
여	2,291	225	9.8	166	7.2	73.7	
계	8,275	769	9.3	601	7.3	78.1	

副業을 희망하는 학생이 769명이고 이중 601명에게 부업을 알선해 주었다. 副業 알선 현황을 직종별로 보면 뒤의 〈표 2〉와 같다.

3) 就業業務

就業情報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業務가 바로 卒業生 및 卒業豫定者들에 대한 就業業務라고 할 수 있다. 弘益大學校에서는 就業에 관한 모든 業務는 본 센터로 一元化되어 있다.

企業體나 다른 機關으로부터 수신되는 就業 추천 의뢰 公文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된다. 하

〈표 2〉 직종별 부업 알선 실적

직종별	부업 알선 총수			학내 취업 실적	학외 취업 실적	
	계	남학생	여학생		경신문서	향사유
도서 정리	44	32	12	44		
청소원	18	18		18		
식당 종사원						
사무 보조원	263	183	80	167	20	76
조사원	47	25	22	20		27
거리 질서 계도 요원	36	16	20	6	30	
방법 대원	58	58			38	20
안내원	22		22			22
야간 숙직 및 경비	15	15				15
취로 사업						
행락 질서 계도	34	34			34	
공사장 기사 보조	14	14				14
홍보 요원	16	10	6			16
판매원	10	10				10
편집, 교정 요원	24	20	4	2		22
학술연구보조원						
기 타						
계	601	435	166	257	122	222

나는 總長 앞으로, 또 하나는 해당 學科長에게, 그리고 就業情報센터 所長이 수신자가 된다. 누가 수신자가 되는 就業에 관한 公文은 모두 就業情報센터로 즉시 보내지고 本 센터에서 해당 大學과 學科로 그 公文을 복사해서 보낸다. 또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本 센터의 게시판은 물론 각 大學의 敎學課 게시판에도 게시 공고를 하고 있다. 해당 學科長은 그 科에서 정한 추천 순위에 따라서 추천자 명단을 學長을 경유해서 就業情報센터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 所長은 최종적으로 總長의 결재를 거쳐서 추천하게 된다.

이러한 節次를 거치는 것은 다음과 같은 長點이 있다.

첫째, 就業業務의 一元化를 기할 수 있다. 學內에서 就業業務를 처리하는 過程에 있어서 能率을 기할 수 있다. 또 外部에서 就業關係 일로 學校와 접촉을 하든지 추천을 의뢰할 경우 就業情報센터만 접촉하면 된다. 그래서 業務의 혼란과 분산을 막을 수 있다.

둘째, 就業業務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 就

業業務는 많은 경우에 時間을 다투게 된다. 빨리 해당 大學과 學科에 알리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적격자를 신속히 추천해서 보낼 수 있게 된다.

셋째, 就業業務의 公正性을 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추천 질차가 빈거로워 보일 수 있으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격자를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就業業務의 전반적인 管理가 가능하다. 즉, 就業情報센터를 거쳐서 모든 就業情報가 해당 大學과 學科에 전달되고 또 就業情報센터를 거쳐서 추천되기 때문에 全校生의 就業動態를 언제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의 學科가 추천에 있어서 경합이 되면, 해당 學科長, 學生處長, 本 센터 所長 등이 協議해서 최종 추천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4) 就業 및 面接 特講

學生들의 就業準備를 위해서 알고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사제의 專門家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갖는다. 성공적인 就業을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 또 앞으로의 就業展望, 職業情報 등에 관한 就業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專門家の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서 최근에 와서는 각 企業體에서 신입 사원 채용시 面接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이 面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本 센터에서는 이 분야의 專門家를 초청해서 面接特講을 해 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의 면접도 실시한다. 이 모의 면접은 얼마 전까지 本 센터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으나, 지금은 大學別로 실시하고 있다. 좀더 체계적인 面接訓練方法을 개발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5) 就業對策 冊子發刊

就業情報센터의 중요한 業績 및 功業 중의 하나가 「就業對策」 책자 발간이다. 이 「就業對策」 책자는 그 전에 「취업안내」로 발간되다 중단된 것을 체제를 달리하여 1984년에 學生生活研究

所에 職業輔導部가 설치되면서 다시 發刊되기 시작하여 '89 년도에 第5號가 發刊되었고, 지금은 第6號 發刊作業이 進行중에 있다.

이 冊子는 학생들의 就業準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情報과 資料로 構成되어 있다. 특히 情報量이 방대함으로써 第4號부터는 「就業對策」과 「入社試驗問題」를 別冊으로 내고 있다. 「就業對策」과 「入社試驗問題」는 2,300 부를 인쇄하여 4학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就業對策」책자의 체계를 第5號를 중심으로 소개하면 「就業對策」이 423 쪽, 「入社試驗問題」가 505 쪽의 분량으로 構成되어 있다. 「就業對策」의 내용은 序頭 부분에 職業人의 자세와 職業選擇의 일반적인 유의 사항에 관한 學內의 教授와 學外의 專門家의 글이 실려 있다. 第1部는 就業論文과 面接對策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論文의 作成法과 企業體의 論文例示가 수록되어 있다. 面接對策에 관해서는 面接試驗의 傾向, 面接試驗의 施行方法, 面接試驗의 評價要素와 基準, 質疑·應答의 實例 등의 내용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2部는 考試 및 資格(採用) 試驗案內로 公務員採用試驗, 國家技術資格檢定試驗, 각종 資格試驗과 檢定試驗에 관한 案內로써 構成되어 있다.

第3部는 分野別 就業案內로서 각 企業體에 대한 구체적인 情報를 수록하고 있다. 就業分野는 財閥 그룹, 國營企業體, 金融界, 言論界 그리고 業種別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다. 각 企業體에 대해서는 所在地, 채용 담당 부서명, 채용 담당자, 전년도 총 매출액, 총 종업원 수, 승진(인사) 제도, 주요 사업 내용, 후생 복리 제도, 계열 회사 및 주업종, 그리고 採用計劃 등에 관한 情報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採用計劃에 대해서는 채용 예정 인원, 대상 학과, 모집 방법, 모집 月日, 전형 방법, 채용 구분,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면접 방법, 면접 포인트, 초임 및 상여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의 각 사항에 대한 前年度 採用實績을 소개하고 있다.

第4部는 기타 就業準備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自己紹介書의 作成

方法과 履歷書의 作成方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예도 제시하고 있다.

「入社試驗問題」는 第1部에서 國語, 第2部에서 英語, 第3部에서 常識問題 등을 각 기관별로 소개하고 있다. 第4部에서는 行政職, 稅務職, 技術職 등의 公務員 試驗問題 등을 다루고 있다. 第5部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요 국제 시사 약어, 핵심 용어, 잘못 읽기 쉬운 한자, 비슷한 한자, 두 가지 음의 한자, 고사성어, 자주 출제되는 상식 문제 등을 附錄에 포함시켰다.

「就業對策」과 「入社試驗問題」에 수록되는 내용은 關係會社에 公文을 띄워서 회신을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一次的인 情報를 수집하고, 또 다른 보조 자료나 문헌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다.

6) 企業體 合同說明會

매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리크루트社가 주관하는 企業體 合同說明會를 본 센터에서 관장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참가 會社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情報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서 리크루트社에서 주관하는 전역 예정 장교를 위한 會社 合同說明會도 매년 弘益大學校에서 개최하게 되어 본 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7) 教授의 緣故 企業體 訪問

弘益大學校에서는 매년 2학기 就業절이 되면, 教授들르 하여금 연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학생들의 就業弘報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모든 教授들은 연고 기업체 방문 계획서와 방문 결과를 就業情報센터 所長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방문 성과를 보면 '88년도에는 모두 256개의 會社를 방문해서 21건의 就業確約을 받았다. '89년도에는 260개 會社를 방문해서 42건의 就業確約을 받고 52건의 추천 의뢰를 받았다.

8) 就業業務의 電算化

날로 방대해지고 多樣化되는 就業業務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센터에서는 大

학의 다른 부속 기관에 비해 제일 먼저 業務의 電算化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89 년도에는 쪽주하는 就業情報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16bit PC를 32bit 120mega의 용량을 가진 Power 386으로 대체하였다. 아울러 프린터도 LQ2550으로 모두 1,300 만 원에 해당하는 완벽한 電算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勤勞獎學生 선발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本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就業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업 대상자, 취업 확정자, 취업 의뢰사, 모집 학과, 추천 학과, 동문록 등을 입력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就業狀況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동문록은 취업되어 있는 동문들의 現況을 個人別·學科別·會社別로 入力를 시켜서 동문들의 現況 파악은 물론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就業情報를 얻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업 의뢰가 들어오면 入力되어 있는 취업 대상자 명단에서 적격자를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就業에 대한 情報도 여러 개의 모니터에 연결해서 학생들이 각종 就業에 대한 情報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노동부의 직업 전산망과 연결을 해서 本 센터에서 전국의 求職現況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추진중에 있다.

한편, 각년도 卒業生들이 팩시밀리를 本 센터에 기증하여 就業業務의 신속한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5. 向後 展望 및 課題

弘益大學校 就業情報센터는 就業業務만을 전담하는 全國에서 몇 개 안 되는 獨立된 附屬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

이 現代社會의 職業 世界는 급속하게 變化하고 또 多樣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情報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就業業務의 專門家로 구성된 專門機關에서 담당하는 것이 就業業務의 效率性과 能率性을 기하기 위해서 절대로 요구된다.

大學의 目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 특히 現代社會에서의 大學의 機能은 社會 각 分野에서 요구되는 專門家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던 大學敎育과 就業은 不可分의 關係를 이루고 있다. 자신의 專攻을 잘 活用할 수 있는 職場을 찾는 것은 學生 個人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또한 社會의 要求이기도 하다. 누구나 제 자리에서 자신이 수년간 연마한 知識과 技術을 活用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보람 있는 일이며 나아가 社會의 國家에 큰 利益이 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大學에서의 就業業務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弘益大學校 就業情報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要求와 社會의 變化 추세에 맞추어서 나름대로의 努力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 就業業務(placement)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좀더 근본적인 학생들의 生涯에 걸친 進路開發(career development)과 進路計劃(career planning)의 문제까지 포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職業을 소개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진정한 自身의 모습을 發見하고 自我正體感(self-identity)을 형성하며 올바른 價値觀과 職業觀을 갖도록 하는 訓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就業에 필요한 다양한 技術도 갖추도록 구체적인 訓練 프로그램도 開發해서 實施해야 할 것이고, 職業 世界에 대한 研究 調査活動도 아울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